

수원박물관 소장 『충정공일기(忠定公日記)』의 자료적 가치 탐색*

-계해반정(癸亥反正) 이후 이귀(李貴)의 인물 표상과 연계하여-

이홍식 **

-차 례-

1. 들어가며 - 『충정공일기』 소개
2. 『충정공일기』의 서지적 특징
3. 『충정공일기』의 자료적 가치
4. 나가며 - 『충정공일기』의 의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50212)

** 국립안동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flyingk@anu.ac.kr

[국문초록]

수원박물관 소장 『충정공일기』는 이귀(李貴, 1557~1633)의 후손이 이귀와 관련된 자료를 연월일(年月日) 별로 정리한 책이다. 1623년부터 1626년까지의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어 이귀의 생애 전반을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계해반정(癸亥反正) 이후부터 정묘호란 전까지 이귀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 등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실려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충정공장소』·『목재일기』(규)·『목재일기』 등 이귀의 삶 전반을 다룬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충정공일기』만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충정공일기』의 자료적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이귀의 인물 표상과 연계하여, 『충정공일기』에서 이귀의 인물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충정공일기』는 이귀의 인물 표상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귀의 삶과 그와 관련된 역사 기록의 빈틈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초반 이귀를 중심으로 한 서인의 정치 구도를 파악하고, 인성균의 처리 문제에서부터 호패와 양전과 군적 충원 등 당시의 중요한 정치·사회·군사의 현안들을 파악하기에도 좋은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귀의 인물 표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적 가치를 천착하는 데 집중한 만큼, 17세 초반 정치 구도 위에서 『충정공일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그리 깊이 논하지 못하였다. 일부 자료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만 보였을 뿐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귀(李貴), 『충정공일기(忠定公日記)』, 편년체 역사 기록, 인물 표상, 17세기 초반, 정치 구도, 정치 현안

1. 들어가며 - 『충정공일기』 소개

본고는 계해반정(癸亥反正)을 통해 17세기 초반 혼란했던 정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목재(默齋) 이귀(李貴) 관련 정보를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충정공일기(忠定公日記)』(수원박물관)를 소개하고, 이 자료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천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이귀의 인물 표상과 연계하여 『충정공일기』에서 이귀의 삶을 다른 텍스트와 어떤 차이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자료적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귀는 조선 중기 특히 양란기(兩亂期)의 한복판에서 활동한 정론가(政論家)이다.¹⁾ 현재 그의 삶의 행적을 알려주는 자료가 여럿 남아 전하는데, 이 가운데 『이충정공장소(李忠定公章疏)』(奎4777-v.1-15)는 생전에 이귀가 남긴 글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32권 15책으로 구성된 이 거질은 이귀의 후손인 이회(李恢)나 이회의 후손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귀가 남긴 소차(疏筭)와 편지와 연보 등을 두루 모아 놓아 당대 정치 현안에 대해 이귀가 가진 생각과 취한 태도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귀의 소차(疏筭)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귀의 인물 표상, 특히 인조와 당대 대신들의 시선에 포착된 이귀의 인물 표상을 그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다.

더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 편찬한 『목재일기(默齋日記)』이다. 이 책은 「평거언행(平居言行)」·「반정시사(反正時事)」·「치역논변(治逆論辨)」·「추숭논변(追崇論辨)」·「편당논변(偏黨論辨)」·「강화논변(講和論辨)」·「비어논변(備禦論辨)」·「잡설부록(雜說附錄)」의 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야승』에 실려 있다. 처음 이름은 『노랄수사(老辣隨辭)』(奎4910-v.1-4)인데, 둘 사이에는 내용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³⁾ 이 8편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재일기』

1) 김용흠, 「연평(延平) 이귀(李貴)의 정치론(政治論)과 학문관(學問觀)」, 『한국사상사학』 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75면.

2) 『이충정공장소』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목재일기』의 첫 이름은 ‘노랄수사(老辣隨辭)’였는데, 이후 ‘목재일기’로 굳어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노랄수사』와 『대동야승』 소개 『목재일기』 사이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충정공일기』의 비교 대상으로

는 ‘반정과 치역(治逆), 추숭(追崇)과 편당(偏黨), 강화(講和)와 비어(備禦)’ 등 당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귀의 인식과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어 이귀의 인물 표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이 책은 이귀의 생평을 연대별로 정리한 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새롭게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안방준이 구축해놓은 인물 표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⁴⁾

더하여 주목해 볼 만한 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 이름의 다른 기록인 『목재일기』(奎7160-v.1-3)이다. 『목재일기』와 달리 편차(編次)의 구별 없이 연월일(年月日) 순으로 이귀 유사(遺事)와 관련 자료인 상소(上疏)와 차자(筵子)와 전교(傳敎) 등을 전채해 놓았다.⁵⁾ 이귀가 태어난 해인 1557년부터 죽은 해인 1633년까지의 유사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목재일기』보다 그 내용이 자세하여, 이귀의 인물 표상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목재일기』의 저본으로 보이는 데다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목재일기』에서 안방준이 구축한 인물 표상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에 이번에 소개하는 『충정공일기』는 이귀가 지은 소차(疏筵)뿐 아니라 경연(經筵)에서 인조와 주고받은 대화 등을 두루 정리하되, 이귀와 관련이 있는 훈신(勳臣)과 대신(大臣) 및 간신(諫臣)의 소차까지 포함시켜 이귀의 인물 표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비록 반정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고 1627년 정묘호란 이후의 기록이 빠져 있어 이귀의 삶 전반을 재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존 자료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고 『이충정공장소』로 확인하기 힘든 사건의 전말이 잘 정리되어 있어 『충정공일기』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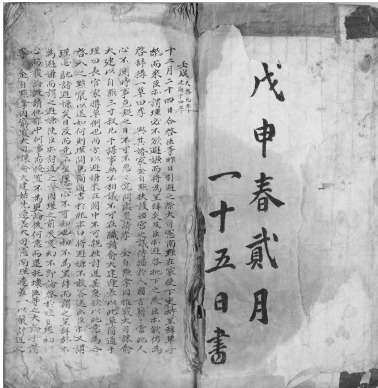
이미 잘 알려진 『대동야승』 소재 『목재일기』를 삼는다. 그런 만큼 이하 『대동야승』 소재 『목재일기』는 『목재일기』로 쓰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동명의 『목재일기』는 『목재일기』(규)로 칭한다.

- 4) 이 외에도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찬한 『연평일기(延平日記)』, 이를 토대로 순한글로 필사한 『니연평일기』 등의 자료가 있다. 이귀를 중심으로 하여 인조반정의 과정과 공신들 간의 갈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17세기 전반의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노랄수사』와 『목재일기』에 비해 그 규모가 적다.
- 5) 『목재일기』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귀의 삶과 정치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원박물관 소장 『충정공일기』를 이귀 관련 여타 자료와 비교하여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같고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결과를 토대로 『충정공일기』가 당대 정치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귀의 인물 표상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충정공일기』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2. 『충정공일기』의 서지적 특징



수원박물관 소장 『충정공일기』는 이귀의 삶을 그 후손이 정리한 것인데, 『충정공일기』 마지막에 부기된 “우뚝하여라, 충정공이여, 우리 집안의 대들보로다.[卓哉忠定, 吾家之宗.]”라는 시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는 후손 가운데 누가 정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충정공일기』 첫 장에 ‘忠定公日記’라는 표제가 있

고, 그다음 장에 “무신년 봄 2월 15일에 적다[戊申春貳月一十五日書]”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언제 정리되었는지는 대략 가늠할 수가 있다. 『충정공일기』의 마지막 기록이 1683년 3월 25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1728년 · 1788년 · 1848년 · 1908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필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사 연도 또한 확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32자 12행으로 필사된 『충정공일기』는 1622년 12월 24일부터 1683년 3월 25일까지 이귀 관련 정보들이 주요 일별로 정리되어 있다.

다만 반정 이전의 기록은 1622년 12월 24일과 25일 이틀뿐이다. 반정 기획이 탄로 날 뻔했던 상황만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합계(合啓)를 통해 소개했을 뿐, 반정의 자세한 정황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 책을 통해서 이귀의 평거언행(平居言行)이나 그의 아들인 이시백(李時白)·이시방(李時昉)과 더불어 반정에서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과 반정의 과정 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묘호란이 있었던 1627년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1628년의 기록 또한 1월 28일 하루뿐이다. 이후 1633년의 기록이 2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2월 15일에 있었던 이귀의 죽음과 관련된 의례의 문제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귀 관련 문헌 가운데서 이귀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예우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까닭에 이귀의 생평을 조명할 때 유용하게 쓰일 만한 자료이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683년 3월 20일과 3월 25일 이틀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인조반정 60주년을 맞아 김수항(金壽恒)과 박세채(朴世采)가 주강(晝講)에서 했던 말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더하여 이귀의 아들인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의 처에게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귀의 공업이 그의 사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필사자의 의도가 읽힌다.

『충정공일기』는 표면상으로는 61년 동안의 기록이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 보면 1623년부터 1626년까지 4년 동안의 기록에 가깝다. 그런 만큼 안방준이 편집한 『목재일기』나 동일한 이름의 『목재일기』(규)에 비해 이귀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정공일기』에는 『목재일기』와 『목재일기』(규)에 실려 있지 않은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 반정 이후 이귀의 삶과 정치적 행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충정공장소』와 달리 이귀뿐 아니라 당시의 훈신과 대신 및 간신의 소차가 함께 실려 있어 반정 이후 이귀가 보여준 정치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임술년) 겨울 12월. 공은 방어사로 속읍의 병사를 모두 징발하여 호랑이를

사냥한다고 일컫고는 흥의동(興義洞)에 군사를 집결하고 장단 방어사 이서(李曙)와 합세하여 거사하려 하였다. 하지만 류천기(柳天機)의 고변으로 인해 화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유희분과 박승중 등이 힘써 주선한 데 힘입어 파직되는 데 그쳤다. 대개 공이 탄핵을 입은 것은 비록 대사헌 남근(南瑾)의 손에서 나왔지만, 실은 유희분과 박승중이 류천기의 고발을 듣고서 지휘한 것이었다. 바로 나문(拿問)을 청하지 않은 까닭은, 만약 서궁을 부호한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으면 화가 자진(慈殿)에 미치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 후 이이첨 등이 이 일을 듣고는 서궁을 부호한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았고, 양사에서는 함께하여 공과 김자점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대사간 유대건(俞大建)도 김자점의 외숙이란 이유로 탄핵을 입었다. 이에 광해는 대북(大北)이 중북(中北)을 모함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라 의심하고, 풍문으로 옥사를 일으킬 수 없다 하여 불문에 붙였다. 대개 김자점이 중간에서 힘써 주선한 덕택이었다.⁶⁾

임술년【천계 원년, 광해 14년】 12월 24일. 합계(合啓)하였다. “신들이 어제 인피(引避)하여 대사헌 남근(南瑾)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리(下吏)를 시켜 올릴 계사(啓辭) 단자(單子)의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들은 남근이 반드시 혐의를 피하지 않고 장차 계사를 올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인피 계사에 대한 비답을 내리신 뒤에, 신들은 다시 계사를 올리려고 한 통의 초본을 만들어, ‘이귀가 그의 인척인 김자점(金自點)과 함께 서궁(西宮)을 부호(扶護)한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나라 안에 말들이 시끄럽습니다. 인심을 헤아릴 수 없고 시사(時事)가 위급한 이때에 재빨리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귀와 김자점을 잡아다가 가두고 추궁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대사간 유대건(俞大建)은 김자점의 외삼촌으로서 일을 모의하는 데 있어 서로 의논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직위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유대건을 체차(遞差)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략)” 비답하였다. “이 일에 무슨 분명히 드러나 증거할 만한 실질적 행적이 있다고 국기일에 함부로 아뢰는가? 설령 김자점이 그

6) 『墨齋日記』(奎7160-v.1-3) : “(壬戌) 冬十二月. 公以防禦使盡發屬邑之兵, 名以獵虎, 聚兵于興義洞, 與長湍防禦使李曙, 將爲合勢舉事. 而因柳天機告變, 禍將不測, 幸賴柳朴等宣力, 止於罷職. 蓋公之被劾, 雖出憲長南瑾之手, 而其實柳朴聞天機之告, 而指揮者也. 所以不爲直請拿問者, 若以扶護西宮爲罪, 則恐禍及慈殿故也. 厥後爾瞻輩, 得聞機事, 以扶護西宮爲罪, 兩司合啓, 請鞫公與金自點, 而其時諫長俞大建亦以自點之表叔被劾. 光海疑出於大北欲陷中北之計, 乃以不可風聞起獄, 置之不問. 蓋緣自點從中宣力之功也.”

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유대건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그러니 ‘상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죄목을 감히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시기에 대사헌은 더욱 경솔하게 체차시킬 수 없다. 대체로 어찌 소문만으로 옥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⁷⁾

이 『충정공일기』는 그 구성만 놓고 보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목재일기』(규)와 많이 닮았다. 특히 연월일(年月日) 순으로 이귀 관련 유사(遺事) 및 관련 정보들을 배치해 놓은 데서 그 유사성이 분명히 확인된다. 하지만 서술하는 방식과 다루는 자료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위에 소개한 임술년(1622)년 12월 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두 기사는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서술 방식이 전혀 다르고 다루고 있는 자료 또한 같지가 않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목재일기』(규)에는 1622년 12월에 있었던 반정 계획이 무산될 뻔한 상황이 이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충정공일기』에는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양사의 합계(合啓)와 광해군의 비답(批答)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 유희분과 박승종 등이 이귀와 김자점의 국문을 청하고 유대건을 탄핵한 사실 등은 『목재일기』(규) 기사를 통해서 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탄핵의 내용은 『충정공일기』를 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연월일(年月日) 순으로 유사를 구성한 것 외 두 텍스트 사이에는 겹치는 지점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충정공일기』는 『목재일기』(규)와 다른 형태의 텍스트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충정공일기』의 제목에 일기(日記)라는 명칭이 보이지만, 실

7) 『忠定公日記』: “壬戌【天啓元年, 光海十四年】十二月二十四日. 合啓, 臣等昨日引避之際, 大司憲南瑾在家, 使下吏持呈辭單子紙而來, 臣等謂瑾必不欲避嫌, 而將爲呈辭矣. 及臣等避啓批下之後, 臣等欲仍爲啓辭, 構一草曰, 李□與其婚家金自點, 扶護西宮之議, 傳播於人, 國言藉藉. 當此人心不測時事危疑之日, 不可不急急究問, 處置請李□金自點拿囚推覈. 大司諫俞大建以自點三寸叔, 凡干謀事, 無不相議, 不可在職, 請俞大建遞差. (하략) ○ 答曰, 此事有何顯著可據實跡, 而冒啓於國忌正日乎. 設或自點有所云云, 大建何以知之, 乃敢以無不相議, 構成罪目乎. 此時都憲, 尤不可輕遞. 大概, 豈可以風聞起獄也. 並不允.”

제 서술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기체의 서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귀의 관점에서 연월일 별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귀와 관련된 정보들, 그 가운데 상소(上疏)와 차자(劄子)와 전교(傳敎) 등을 연월일 별로 그대로 배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편년체 역사 기록에 가깝다. 그런 만큼 두 텍스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차이의 지점에 『충정공일기』의 자료적 가치가 자리한다.

3. 『충정공일기』의 자료적 가치

3.1. 이귀의 새로운 인물 표상 구축 자료

『충정공일기』는 1623년부터 1626년까지 4년 간의 이귀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런 만큼 그의 삶 전반을 조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텍스트이다. 『목재일기』와 『목재일기』(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소의 언행과 반정 때의 역할, 정묘호란 시 취했던 태도 등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반정 이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반란을 잠재우며 혼란한 정국을 바로잡으려 했던 개혁적 정치가로서의 면모는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이충정공장소』나 『목재일기』, 『목재일기』(규) 등에 실려 있지 않은 자료뿐 아니라 관련 훈신과 대신 및 간신의 소차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이귀의 진면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근래에 신의 일가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 정운(鄭蘊)의 말은 더욱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영남에서 선비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귀가 무고한 인성군을 죽이고자 하니 그가 어질기 때문이다. 운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둡고 졸렬하며 무식한 말입니다. 권도(權濤)와 박명부(朴明搏)의 경우에는 자못 식견이 있습니다. 정운은 비단 관직에 있으면서 지극히 탐욕했을 뿐만 아니라 첩가(妾家)를 탁칭(託稱)하여 노비 20여구(口)를 불법으로 차지했으니, 그 마음 씀이 뻔뻔

합니다. 나라에 큰 변란이 있었을 때 그는 간장(諫長)으로 있으면 오히려 그 집에 누워 있었으니, 조정에 비록 한 사람의 정온도 없었다 한들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이준(李俊)이 신을 보러 왔기에 신에 이준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몇 사람의 목을 벤 뒤에라야 나라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고 하니, 이준이 크게 놀라 이르기를 “누구를 말하는지요?”라고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정경세(鄭經世)와 최현(崔暉)입니다. 사대장군(四大將軍)의 과직을 청하여 기찰(譏察)의 길을 막고자 했으니, 반역한 무리가 이들의 말을 듣고서 몰래 옛보다 강도짓을 할까 심히 염려됩니다.”⁸⁾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충정공일기』에는 이귀의 거침없는 언행 때문에 야기된 사단이 사실 그대로 많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이귀는 인조대 전반 정사공신(靖社功臣) 원훈(元勳)이었던 김류(金瑬)와 거의 모든 국사에서 대립 갈등하여, 인조 앞에서 탄핵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인조대의 이름난 정승인 이원익(李元翼)과 오윤겸(吳允謙), 명류인 장유(張維)와 정온(鄭蘊) 등도 이귀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였다.⁹⁾ 그 결과 실제로 이귀는 위와 같은 파격적인 처신으로 충신들과 삼사의 연관들로부터 무수히 탄핵을 받았다.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1624년 11월 27일 기사 가운데 일부인데, 주강(晝講)에서 이귀가 인조에게 직접 아뢴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치역(治逆)의 과정에서 인성군의 처벌을 반대한 정온(鄭蘊)을 폄훼하고, 역도에 대한 기찰의 길을 막은 정경세(鄭經世)와 최현(崔暉)의 목을 베야 한다고 인조에게 말하는 대목은 이귀의 인물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자료는 이귀의 삶을 다룬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만 “정경세(鄭經世)와 최현(崔暉)은 앞서 모두 상소하여 대장

8) 『忠定公日記』：“近因臣之一家人聞之，則鄭蘊之言，尤爲叵測。曾於嶺南士子聚會之中，發言李□欲殺無辜之仁城，以其賢故也。云云。此其昏劣無識之言。而若權壽朴明搏，則頗有識見矣。蘊非但居官極貪，託稱妾家，奴婢橫占二十餘口，其爲用心無狀。當國家有大變，渠以諫長，尙臥其家，朝廷上，雖無一鄭蘊，何關乎。頃者，李俊來見臣，臣謂俊曰，必斬數人，然後國事可爲。俊大驚曰，謂誰。臣曰，鄭經世崔暉也。請罷四大將軍官，欲社譏察之路，爲逆之徒，得聞此輩之言，而潛伺竊發，甚可慮也。”

9) 김용흠, 「연평(延平) 이귀(李貴)의 정치론(政治論)과 학문관(學問觀)」, 『한국사상사학』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78면.

의 군관을 혁파하기를 청했으나, 신은 참(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라고 간략히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¹⁰⁾ 『충정공일기』에는 이 외에도 주장에서 이를 두고 인조가 윤방(尹昉)과 이광정(李光庭)과 장만(張晩)과 나눈 대화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이때의 정황뿐 아니라 이귀의 초상을 다른 어떤 자료보다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¹¹⁾

신이 이귀와 더불어 서로 안 지 40년입니다. 정의(情義)가 매우 친밀하여 간장(肝腸)을 서로 비취 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이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말의 병통은 젊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래에 ‘머리를 베어야 한다.’는 말은 그가 평소애 해 온 말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이 때문에 털끝만큼이라도 혐의를 둘 뜻이 있겠습니까?¹²⁾

심지어 이귀는 공석(公席)에서 상신(相臣)이었던 신흘(申欽)을 욕하여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단은 인성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정청(庭請)을 멈춘 우의정 신흘에게 이귀가 책임을 물으며 ‘머리를 베어야 한다’고 극언한 데서 시작되었다.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1624년 12월 28일 기사 가운데 일부로, 이귀의 극언으로 인해 사직을 청한 신흘의 차자이다. 『목재일기』에는 “우상은 공의 말로 인하여 정고(呈告)하고 나오지 않았으며, 잇달아 사직 차자를 올리니, 좌상 또한 차자를 올려 사직하였다. [右相因公言呈告不出, 而連上辭筭, 左台亦陳筭辭職.]”라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충정공일기』에는 신흘의 「사직차(辭職筭)」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1625년 12월 25일에

10) 『충정공일기』 1624년 11월 27일 기사에는 이 외에도 주장에서 이귀가 인조와 나눈 대화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길게 기술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실록이나 『목재일기』, 『목재일기』(규) 등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11) 『충정공일기』에는 이귀의 생평을 정리한 다른 어떤 자료보다 이귀의 탄핵 관련 기사가 많이 그리고 자세히 실려 있다. 이는 일면 이귀에 대한 비판적 자료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충정공일기』에는 이귀의 주장과 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까지 함께 대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이귀의 상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12) 『忠定公日記』：“臣與李□，相識四十年矣。情義甚密，肝腑相照。每當大事，必以此人爲期待。而顧其言語病痛，自少時有之。近來斬頭之說，其所雅言，臣豈敢以此有一毫嫌介之意哉。”

는 비망기(備忘記)와 이귀의 차자, 1625년 1월 5일과 1월 9일에는 신희의 차자와 인조의 비답, 1월 16일과 1월 17일에는 이귀의 추고공사(推考公事) 관련 기사 등이 자세히 실려 있어 치역(治逆)의 과정에서 이귀가 취한 태도와 그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 그런 이귀를 바라보는 대신과 간신의 시선 등을 종합해 바라볼 수 있다. 일기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연월일(年月日) 별로 이귀 관련 역사 자료들을 종합하여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대사헌(大司憲) 정엄(鄭曄)이 아뢰었다. “... 이귀는 젊어서부터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에 대한 근심을 실로 마치 집안일처럼 아침저녁 사이에 번고가 있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말한 것이 맞지 않아서 무리의 좌중에게 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조정의 체면을 손상했다 할지라도 그 본심에 따르면 결단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제의 하교를 공손히 받들건대 군부를 가벼이 여기고 조정을 멸시했다고 하교하셨는데, 이것은 이귀의 본뜻이 아닙니다.”¹³⁾

심명세(沈命世)가 아뢰었다. “... 하물며 이귀와 장만의 다툼은 오로지 나라 일을 다스리다 발생한 것이니 짐작하여 용서할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때문에 한 나라의 중임(重任)을 바꾼 까닭에 관리 하에 있던 무사들을 모두 지키지 못하여 장차 흩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¹⁴⁾

다만 필사자는 이귀의 이러한 거침없는 언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의 극언이 충분(忠憤)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 다른 신하들의 말로 증거하여, 이귀의 인물됨을 균형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¹⁵⁾ 첫 번째로 소개한 예시문은 1624년 12월 26일에 대사헌(大司

13) 『忠定公日記』: “大司憲鄭曄曰, … 李□自少有心病. 今日憂國, 實如家事, 若朝夕之有變者. 然誠之所發言不適中, 衆坐中語侵. 雖損於朝廷上體面, 原其本心, 則斷無他意. 恭承昨教, 以輕君父蔑朝廷爲教, 此則非李□之本意也.”

14) 『忠定公日記』: “沈命世曰, … 況李□張晚所爭, 專爲國事發, 則似有斟酌容怨處, 而遽以此遞一國之重任, 故武士之居管下者, 皆不能保, 將有渙散之憂云矣.”

15) 뿐만 아니라 이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있는 모습까지 제시하여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는 『충정공일기』 1625년 3월 8일 기사 등에서 확인이 된다. 이 기사에는 이귀가 주장에서 인조

憲) 정엽(鄭曄)이 인조에게 한 말이고, 두 번째로 소개한 예시문은 1625년 1월 27일에 심명세(沈命世)가 인조에게 한 말이다. 두 사람 모두 ‘이귀의 언행이 지나쳤지만 공이 충(忠)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극언의 피해자인 신희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신희는 1625년 2월 2일 인조를 인견하고 “이귀의 말이 너무 지나쳐 체면을 해친 것은 있지만, 본심으로 말하면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李□言語過中, 只是有害於體面, 而以本心言之, 則小無失矣.]”라고 말했는데, 핵심은 정엽과 심명세의 주장에 상응한다. 이외에도 김자점(金自點)과 이서(李曙) 등 여러 훈신들이 이귀를 두둔하였는데, 그 기록이 『충정공일기』에 고스란히 남아 전한다.

이것은 기축역변 당시의 언행을 중심으로 이귀의 인물됨을 아름답게 그려낸 『목재일기』 「평거언행(平居言行)」과 그 결이 아주 다른데, 역사적 평가에 근접한 살아 있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어¹⁶⁾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물론 『목재일기』 「치역론변(治逆論辨)」에 일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기존 자료에서 이귀의 이러한 면모를 온전히 탐색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차자와 비망기 등 당대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이귀의 과한 언행을 가감 없이 드러내어 ‘충(忠)을 위해 과격한 언사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의 초상을 구체화한 자료는 바로 『충정공일기』이다. 『충정공일기』에는 기왕의 이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뿐 아니라 관련 인물들의 자료까지 가감 없이 배치하여 이귀의

와 나는 대화가 실려 있는데, 이 대화 가운데 “신은 이미 늙었고 타고난 성품이 망령되고 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면서 미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최근에 말을 잘못하여 체면을 크게 훼손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야(田野)로 물러나 수년을 지내기로 기약했는데,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황궁하게도 돌아왔습니다.[李□曰, 臣既老年, 妄賦性且急, 與人相爭, 有若發狂. 頃日失言, 大傷體面, 自分退休田野, 期以數年, 曲荷天恩, 惶恐入來.]”라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 16) 이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조선왕조실록』 1625년 3월 25일 기사에 실려 있는 사신(史臣)의 다음 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귀는 지조가 단정하지 못하고 언어가 법도가 없어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젊어서 사숙(私淑)한 기초가 있어서 그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또 임금을 친애하고 국사를 근심하여 못사람의 비방도 피하지 않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였는바, 충분(忠憤) 한 가지만은 그와 비교될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이귀를 잡군자(雜君子)라고 하였다.”

인물됨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더하여 『충정공일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바로잡아 나라를 튼실하게 하려는 이귀의 개혁적 관료로서의 면모와 노력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¹⁷⁾ 특히 이괄(李适)의 난을 비롯하여 반정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여러 역모를 다스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노력에서부터, 호패와 양전과 균적 충원 등 당대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애선 노력까지 두루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 물론 관련 내용들이 연월일 별로 편차되어 있어 주제별로 정리된 『목재일기』에 비해 다소 산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목재일기』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까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귀의 개혁적 관료로서의 진면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텍스트다.

근자에 호판을 만나보니 호패법(號牌法)은 성상께서 ‘상양(商鞅)의 법이라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렇겠습니까? 인심을 얻은 뒤에 양전을 하고 양전을 한 뒤에 호패를 시행하게 되면, 오늘의 부득이한 형세를 보고 가을로 물려 미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오히려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계책은 이 호패를 하고 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9월 1일부터 결단하여 행하시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만들면 각 관아에 오히려 산자가 있을 것입니다. 양반의 경우 아무 달부터 시행하고, 그 뒤에 양인(良人)이 차고, 또 그 뒤에 노예(奴隸)가 차면, 대신(大臣)부터 하민(下民)에 이르기까지 각각 정해진 날에 스스로 차게 될 것이니 특별히 소요를 일으킬 단초가 없습니다. 소신 더러 하게 하시면 마땅히 할 것이며, 하지 못하면 소신을 죄주소서.¹⁸⁾

17) 이귀의 제도개혁론자로서의 면모는 일찍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는데, 『충정공일기』는 이를 보충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귀의 제도개혁론자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용흠, 「연평 이귀, 실학과 탕평론의 선구자」, 『내일을 여는 역사』39,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0; 박홍규·박실수, 「이귀(李貴)의 제도개혁론과 사공(事功)의 문제」, 『정치사상연구』20,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 이지희, 「목재 이귀의 생애와 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8) 『忠定公日記』: “頃見戶判, 則號牌之法, 自上以爲商鞅之法, 不可行也, 豈其然乎. 得人正而後爲量田, 爲量田而後爲號牌, 則在今日不得已之勢, 而退於秋, 成遷延, 至此, 尙不爲之. 富國強兵之策, 出於此號牌之爲不爲矣. 自九月初一日, 斷而爲之, 庶可及矣. 成冊, 則各官尙有存者, 兩班則自某月爲之, 其後良人佩之, 又其後奴隸佩之. 自大臣至于下庶, 各定日自佩, 則別無騷擾之端矣. 使小臣爲之則, 當爲之, 不能

위에 소개한 글은 『충정공일기』 1624년 7월 28일 기사 중 일부인데, 양전에 앞서 호패법을 시행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계책임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귀는 그 스스로 “근래 나라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더해져서 마음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加以近日過慮國事, 心恙益重.]”라고 말했을 정도로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애썼던 인물이다. 『충정공일기』에는 1624년 7월 28일 이후부터 호패법 관련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호패법을 시행하기 위해 집요하게 인조를 설득했던 이귀의 노력과 충정이 그 어떤 텍스트보다 풍성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충정공일기』에는 이귀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신하들의 주장까지 함께 실어 놓아 이귀의 개혁적 면모를 비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초반 제도개혁의 상황과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¹⁹⁾

이처럼 『충정공일기』에는 1623년 반정 이후부터 1626년 호란 이전까지 이귀가 처해 있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이귀가 보여준 태도가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풍성하고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조선 중기 개혁적 관료로서의 이귀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이충정공장소』, 『목재일기』, 『목재일기』(규) 등과 겹치지 않는 내용까지 두루 정리되어 있는 까닭에 기왕의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귀의 본모습을 엿보는 데에도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2. 이귀 삶과 관련 역사 기록의 보충 자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충정공일기』의 필사자와 필사 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필사자가 어떤 자

爲之, 則罪小臣.”

19) 이귀가 입안했던 부국강병책의 핵심은 1626년 4월 8일 기사에 8조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귀가 인조에게 올린 차자인데,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승정원일기』에만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는 결락된 글자가 많아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만큼 『충정공일기』 소개 해당 기사는 이귀의 개혁적 성향과 개혁의 방향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료를 참고하여 『충정공일기』를 정리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안방준이 정리한 『목재일기』의 저본이 된 이귀의 일기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 1622년부터 1683년 사이의 사건을 기록한 당대의 조보(朝報)나 소초(疏草) 등을 기초로 정리했을 수도 있다. 비록 『충정공일기』의 저본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이귀 관련 자료들과 같고 다른 점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만큼, 『충정공일기』는 이귀 삶과 관련 역사 기록의 빈틈을 채우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을축년. 2월 4일. 상께서 특명으로 서용하여 전례대로 부원군에 배수하였다. 공은 강사(江舍)에 있으면서 사정을 진달하여 사직을 청하고, 이에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는 뜻을 다하니 상께서 “차자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소.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수 있으면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경은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아 나의 기대에 부응하고 조속히 출사하십시오.”라고 비답하셨다. 공이 세 번이나 아뢰 뒤에도 또 특별히 부르는 명이 있어서 곧 부름에 응하지 못하는 뜻으로 차자를 올렸다. 대략은 이러하다. “성명께서 비록 신의 미치고 망령됨을 염려하신다 할지라도 말이 시신(侍臣)을 저축한 즉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말이 상신(相臣)을 침해한 즉 또 ‘경은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니, 신이 목석이 아닌데 어찌 성상의 가르침에 정녕 감격할 바가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이 전념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 이시운데 전하께서 중히 여기고자 하시는 것은 대신입니다. 대신이 우리 임금이 중함을 모른다면 이것은 그 체면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고, 전하께서 먼 앞날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그 국세(國勢)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곳을 기워서 곧은 기운이 펼쳐지고 삼상(三相)을 참하여 노병이 물러나게 하소서. 선유(先儒)의 정론(定論)이 대신의 체면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를 비난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은 원훈중신으로 훈신을 거느리고 훈부(勳府)에 앉아 역적을 성토하던 날, 대신이 역적을 두둔한 잘못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²⁰⁾

20) 『墨齋日記』(奎7160-v.1-3) : “乙丑. 二月初四日. 上特命敍用, 例拜府院君. 公在江舍, 陳情辭職, 仍致感激天恩之意, 則上答曰, 省筭, 具悉卿懇. 過而能改, 則猶足爲無過之人, 卿勿吝改, 以副予望, 從速出仕. 公三告後, 又有特召之命, 乃以不得赴召之意上筭. 略曰, 聖明雖慮臣狂妄, 言觸侍臣, 則乃以過而能改爲教, 語侵相臣, 則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목재일기』(규)에 수록된 을축년(乙丑年, 1625)의 첫 번째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이귀가 사직을 청하는 차자 한 편이 실려 있는데, 『이충정공장소』에도 해당 차자는 보이지 않는다. 『목재일기』「치역논변」에만 이 가운데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해당 편차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안방준이 『목재일기』(규)의 내용을 산삭하여 『목재일기』를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재일기』(규)에 수록된 내용이 『목재일기』보다 훨씬 자세하다.²¹⁾ 그런 만큼 이귀의 삶을 제대로 재구하고 인물의 표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들을 서로 보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사간(大司諫) 김상헌(金尙憲)이 내계(來啓)하였다. “지난번에 우찬성(右贊成) 이귀가 공적인 자리에서 상신(相臣)을 꾸짖고 욕하여 체면을 크게 손상하자, 성상께서 그날 동석했던 훈재(勳宰, 훈신(勳臣)과 재신(宰臣))를 불러서 그 실상을 물었으니, 장차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훈재가 된 자는 덮어서 가려줄 생각을 끊고서 명백하게 진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과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 장만(張晩)은 감히 천위(天威)가 지적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렸으며, 몇 번이고 하문했지만 끝내 바르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²²⁾

승지(承旨) 김수현(金壽賢)이 아뢰었다. “선왕조에서는 중신(重臣)으로 죄를 입은 자를 곧장 수서(收斂)하여 다르게 대우하였으니, 이것을 깊이 생각할 만함

又以卿勿吝改爲戒，臣非木石，豈不知聖教可寧有所感激乎。弟臣之欲專者，君上也，殿下之欲重者，大臣也。大臣不知吾君之爲重，則是自毀其體面也，殿下不容慮遠之忠言，則是自危其國勢也。命葺折口而直氣伸，斬三相而虜兵退。先儒定論，未聞以虧損大臣體面以非之者也。臣以元勳重臣，率勳宰坐勳府討逆之日，峻責大臣護逆之失。”

21) 해당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실려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에는 이귀를 주사 당상(壽司堂上)으로 계하한 사실과 본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謀立紀明倫靖社功臣)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으로 삼았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22) 『忠定公日記』：“大司諫金尙憲來啓曰，右贊成李□於公坐中，詬罵相臣，大損體面，上特召其日同參勳宰，問其實狀，將欲有所處置。爲勳宰者，所當絕意回護，明白陳達。而延原府院君李光庭玉城府院君張晩乃敢含糊囉囉，咫尺天威，屢勤下問，而終不直對。”

니다.” 김자점이 아뢰었다. “이귀는 나라에 대한 근심이 병이 되었다가 문득 발광하여 위로 삼공에게 미쳤습니다만, 이귀로 하여금 이와 같은 데 이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²³⁾

그런데 이때 『충정공일기』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기사는 분명 『충정공일기』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충정공일기』에는 『목재일기』(규)와 『목재일기』 및 『이충정공장소』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 『충정공일기』 을축년 기사는 1625년 1월 5일부터 시작하며, 이후에도 1월 9일 · 1월 16일 · 1월 17일 · 1월 19일 · 1월 26일 · 1월 27일 · 2월 2일의 기사가 더 실려 있다. 위에 소개한 첫 번째 예시문은 1625년 1월 17일 기사로 대사간 김상헌이 ‘이광정과 장만이 이귀가 신희에게 극언한 사실을 인조에게 제대로 진달하지 않았다’고 과직을 청한 계문(啓文)의 일부이고, 두 번째 예시문은 1월 27일 승지 김수현과 김자점(金自點)이 인조를 인견하여 이귀를 두둔하며 한 말의 일부이다. 이처럼 『충정공일기』에는 우의정 신희에게 극언한 이후 조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귀를 두둔하는 자와 비판하는 자의 의견을 고루 수록하여 당시 인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이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앞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귀의 초상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더하여 1월 17일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지만,²⁴⁾ 1월 27일 기사는 그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다. 162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었던 이귀 관련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정공일기』를 반드시 읽어야만 한다. 그런 만큼 『충정공일기』는 기왕의 이귀 생평을 정리한 자료 및 관련 역사 자료와 더불어 분명히 상보적 관계를

23) 『忠定公日記』：“承旨金壽賢曰，先王朝，如重臣之被罪者，卽爲收叙而異待之，此可體念矣。自點曰，李□憂國成疾，將發狂，上及三公。使李□不當至於如此。”

24)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다만 ‘간원에서 아뢰었다.[諫院啓]’라고 했을 뿐이지만, 『충정공일기』에서는 대사간 김상헌이라 분명히 지칭하였다. 실제로 『충정공일기』에는 모든 날짜의 기사에서 인조에게 계고(啓告)한 주체를 정확히 밝혀 놓았다. 그런 만큼 『충정공일기』는 당대의 정치사에서 이귀와 주변 관료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갖는다.

특진관 이귀(李貴)가 아뢰었다. “전대(專對)의 책임이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선왕조 때에 정응태(丁應泰)가 거짓을 꾸민 까닭에 변무(辨誣)하는 거조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수상 유성룡(柳成龍)이 멀리 가는 것을 꺼려 가기를 자청하지 않자 선왕께서 이항복(李恒福)을 우상으로 삼아 대신 보내고 이정구(李廷龜)를 부사로 삼았는데, 그때 모두가 마땅한 사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변무 사신에 있어서는 거개가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덕형(李德炯)은 근후(謹厚)할 뿐이고 조찬한(趙縝韓)은 문사(文辭)에 능할 뿐이며 오환(吳煥)으로 말하면 죄를 진 사람인데도 구차하게 채웠으니, 각별히 가려서 보내소서.”²⁵⁾

주강(書講) 때 특진관(特進官) 이귀가 아뢰었다. “북경에 가는 사신은 가리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번 변무(卞誣)의 사신은 관계된 바가 가장 중요하여 더욱 마땅히 잘 가려야 합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 이항복(李恒福)을 상사(上使)로 삼고 이정구(李廷龜)를 부사(副使)로 삼았으니, 한 시대의 명인(名人)을 뽑아 능히 전대(專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변무의 일은 나라의 가장 큰 일인데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까닭에 모두들 교묘하게 피하여 가지 않는지라 그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차히 먼저 차송하시니, 이덕형(李德炯)은 비록 근후(謹厚)하지만 문명(文名)이 없고, 조찬한(趙縝韓)은 비록 문재(文才)가 있지만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오환(吳煥)의 사람됨은 가장 맹랑하니, 모두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대신(大臣)은 비록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대신에 버금가는 자는 잘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부사와 서장관 또한 재주와 국량이 감당할 만한 사람을 모두 차송하심이 마땅합니다.”²⁶⁾

뿐만 아니라 『충정공일기』에 실려 있는 차자와 주강(書講)에서 인조와 신하들이 주고받은 문답들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국

25)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 갑자(1624) 1월 22일(정축) 기사.

26) 『忠定公日記』: “書講時, 特進官李□所啓, 赴京使臣不可不擇. 況此卞誣使, 所關最重, 尤當揀擇. 曾在先朝, 李恒福爲上使, 李廷龜爲副使, 擇一代名人, 而能爲專對者也. 今此卞誣之舉, 國家莫大之事, 皆以越海之故, 巧避不往, 不計其事之輕重, 而苟先差送, 李德炯則雖爲謹厚, 而索有文名, 趙縝韓雖有文才, 而不識事件. 況吳煥之爲人, 最爲孟浪, 皆不可堪任者也. 大臣則雖不可遣, 亞於大臣者, 揀擇送之. 副使及書狀官, 亦才局可堪之人, 並爲差送, 宜當.”

가의 공적 기록과도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첫 번째 예시문은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 갑자(1624) 1월 22일(정축) 기사 중 일부이고, 두 번째 예시문은 『충정공일기』 1624년 1월 22일 기사 가운데 일부이다. 주장에서 이귀가 인조에게 아뢰는 말을 정리한 것인데, 둘 사이에 글자의 출입이 있을 뿐 아니라 『충정공일기』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다.²⁷⁾ 이 기사는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과전하는 사행단의 구성에 엄정했던 이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목재일기』와 『목재일기』(규)에는 해당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충정공일기』에는 이러한 자료가 적지 않다.

이서가 아뢰었다. “윤안형(尹安亨)이 지난해에 고변했던 권반(權盼)을 그 당시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았는데, 지금 비로소 그 원수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초에 따져 묻지 않은 것은 진실로 옳았습니다. 또한 이귀의 말은 비록 미치고 망령되지만 임금을 사랑하는 충정은 옛 사람 중에 비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군부(君父)를 능멸했다는 하교는 꼭 맞지는 않는 듯합니다.²⁸⁾”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충정공일기』 1625년 2월 5일 기사 가운데 일부이다. 이서(李曙)가 주장에서 인조에게 한 말인데, 권반(權盼)을 포함한 윤안형(尹安亨)이 죽은 사실²⁹⁾과 신희에게 극언한 이귀를 충정(忠情)으로 두둔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해당 내용은 『목재일기』와 『목재일기』(규)에는 실려 있지 않고, 『승정원일기』 인조 3년 을축(1625)

27) 더하여 『충정공일기』 1624년 1월 22일 기사에는 “신이 종부시(宗簿寺) 제조(提調)로 참여하고 있어서 본 시(寺)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하인들이 모두 착실함이 없는 사람들인 까닭에 적지 않은 선원록(璿源錄)을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역(閭閻) 사이에 두어서 화제의 근심 또한 생각할 만합니다. 쉼 안의 빈 곳에 옮겨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귀의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28) 『忠定公日記』: “曙曰, 尹安亨上年所告權盼, 其時置而不問, 今者始知其仇死. 一則當初不問, 誠是矣. 且李□之言, 雖狂妄, 愛君之忠, 古人無比. 而頃日蔑君父之教, 似未恰當矣.”

29) 『조선왕조실록』 인조 3년 을축(1625) 2월 1일(경진) 기사에 윤안형(尹安亨)과 조위(趙瑋)를 무고죄(誣告罪)로 복주(伏誅)한 내용이 실려 있다.

2월 5일(갑신) 기사에만 보인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밑줄 친 부분에 글자가 빠져 있어 해당 구절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해당 구절은 『충정공일기』를 보아야만 보충이 가능하다.

이처럼 『충정공일기』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요약되어 있거나 원문이 결락되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원전에 가깝게 다수 실려 있고, 『목재일기』(규)와 『목재일기』 및 『이충정공장소』 등에 실려 있지 않은 자료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이귀가 처해 있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귀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보충할 만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충정공일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1623년부터 1626년까지의 이귀의 언행과 출사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귀의 삶 전반을 조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충정공일기』를 비롯하여 여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반정 이후 이귀의 삶과 정치적 행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정공일기』를 중심에 놓고 여타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나가며 - 『충정공일기』의 의미

본고에서는 수원박물관 소장 『충정공일기』의 자료적 가치를 천착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충정공일기』의 서지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이귀 관련 기왕의 자료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충정공장소』·『목재일기』(규)·『목재일기』 등과 비교 분석하여 『충정공일기』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충정공일기』의 자료적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이귀의 인물 표상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 『충정공일기』는 필사자와 필사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귀의 생애 가운데 일부 시기만을 다루고 있어, 이귀의 삶 전반을 재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 활용에 한계가 있는 텍스트이다. 하지만 『이충정공장소』·『목재일기』(규)·『목재일기』 등과 서로 겹

치지 않는 다수의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임새가 적지 않은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정공일기』는 이귀의 인물 표상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귀의 삶과 그와 관련된 역사 기록의 빈틈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귀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자료까지 폭넓게 수집·정리해 놓음으로써, 이귀의 인물 표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앞으로 1623년 계해반정(癸亥反正) 이후 이귀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면 『이충정공장소』, 『목재일기』(규)·『목재일기』 뿐만 아니라 『충정공일기』 또한 읽지 않을 수가 없다.

더하여 본고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충정공일기』는 17세기 초반 이귀를 중심으로 한 서인의 정치 구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충정공일기』의 필사자는 표면적으로는 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년체 역사 기록에 가깝게 이귀 관련 자료를 배치해 놓았다. 이때 이귀뿐 아니라 이귀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훈신과 대신과 간신의 말과 글을 특정 사건과 연계하여 배치함으로써, 17세기 초반 서인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귀의 과도한 언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단과 그 이후 진행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인물들의 서로 다른 시선과 태도는 17세기 초반 조선 정치사의 한국면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

더욱이 『충정공일기』에는 인성군의 처리 문제에서부터 호패와 양전과 군적 충원 등 당시의 중요한 정치·사회·군사의 현안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 만큼 17세기 초반 조선의 정치·사회·군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귀를 중심으로 사안에 대한 찬반양론을 대비적으로 배치하여, 개별 사건과 사안의 처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천착하기가 다른 자료들에 비해 용이하다. 물론 이귀의 후손이 이귀를 중심으로 이귀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자료들을 배치한 만큼 시선의 균형감은 문제가 될 수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17세기 초반의 정치·사회·군사의 현안들을 파악하기에 좋은 텍스트임

에는 부정할 수가 없다.

『충정공일기』는 이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충정공일기』에 실려 있는 일부 자료는 다른 텍스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그 가치가 낮지 않다. 본고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충정공일기』 1625년 11월 2일 기사에는 의미 있는 자료 한 편이 실려 있다. 바로 완성군(完城君) 최명길(崔鳴吉)이 인조에게 올린 차자(劄子)인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보이지 않고 최명길의 문집에도 없는 자료이다. 절충(折衝) 박종일(朴宗一)이 경기 감사 권반(權盼)과 박응성(朴應晟) 등을 고변한 사건에 대한 최명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데, 차자 속에 이귀 관련 대목이 있어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 자체의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이귀의 관련 자료로도 부차적인 것이지만, 『충정공일기』에 이와 같은 자료가 적지 않음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최근까지 이귀 관련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지만,³⁰⁾ 새 자료가 확인된 만큼 이상에서 말한 의미 범주 내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연구자는 『충정공일기』에 실려 있는 자료를 통해 이귀를 비롯한 훈신들이 치역(治逆)의 과정에서 보여준 철학적 논리와 그 논리에 투영된 의리론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 전기부터 사대부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던 백이론(伯夷論)과 연계하여, 조선 중기의 의리론이 실제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한다.

30) 이귀 관련 연구 성과는 2010년 이후 보이지 않는다. 이전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으로 대체한다.

[Abstract]

Exploring the Value of *The Diary of
ChungjeongGong*
a collection of the Suwon Museum

- In connection with the representation of LeeGwi's character
after Gyehae Banjeong -

Lee, Hongshik(Andog National University)

The newly discovered *The Diary of ChungjeongGong*(possession of the Suwon Museum) is a book of Yi Gwi's descendants organizing data related to Yi Gwi by year and date. Since it mainly deals with information from 1623 to 1626, there is a limit to discussing the entire life of Yi Gwi. However, there is a lot of useful information to check Yi Gwi's political actions and attitudes from the time of Gyehae Banjeong(癸亥反正) to the time of Jeongmyo Horan(丁卯胡亂).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were extracted by comparing it with other data dealing with the entire life of Yi Gwi. An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in that way, we tried to find the data value of this book. In particular, the meaning was revealed b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Yi Gwi's character.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is book was worthwhile as a material that newly established the representation of Yi Gwi's new character and supplemented the gaps in Yi Gwi's life and related historical record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 good text to grasp the political structure centered on Yi Gwi in the early 17th century and to grasp the important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issues of the time.

However, as this paper focused on the representation of Yi Gwi's character and focused on the material value, the meaning of this book could not be discussed very deeply on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early 17th year of age. As only the possibility was shown through some data analysis, follow-up research is expected.

Keywords : LeeGwi(李貴), The Diary of ChungjeongGong, a chronological record, a representation of a person,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political structure, a political issue.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병규, 「조선 인조대의 경세론(經世論)과 주화론(主和論) 연구 : 이귀(李貴)와 최명길(崔鳴吉)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용흠, 「조선 후기 인조대 정치론의 분화와 변통론(變通論)」,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용흠, 「인조대 전반 정치적 갈등과 붕당론 - 이귀(李貴)와 김류(金瑬)의 대립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60, 부산경남사학회, 2006.
- 김용흠, 「연평(延平) 이귀(李貴)의 정치론(政治論)과 학문관(學問觀)」, 『한국사상사학』 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 김용흠, 「연평 이귀, 실학과 탕평론의 선구자」, 『내일을 여는 역사』39,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0.
- 박홍규 · 박설수, 「이귀(李貴)의 제도개혁론과 사공(事功)의 문제」, 「정치사상연구」20,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
- 신선희, 「17세기 필기류와 몽유록의 대비연구 : 전란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이종우, 「주희와 이이의 붕당설과 그것에 관한 인조와 신하들의 논쟁」, 『울곡학연구』 48, (사)울곡학회, 2022.
- 이지희, 「목재 이귀의 생애와 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